

# 말레그룹은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결정을 중단하고 한국공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집회 안내

때: 2024년 4월5일, 금요일 11시30분

곳: 말레그룹 본사앞 PragstraBe 46, 70376 Stuttgart



지난해 12월 7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말레그룹 본사가 한국 자회사인 말레베어공조(부산 기장 장안산 업단지 위치)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2025년 9월부터 한국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이후, 160여 명 말레베어 한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존 위협을 겪고있다.

말레그룹은 150여 개 해외 생산거점과 7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말레그룹은 한국공장의 폐쇄 필요성을 매출 감소와 투자 부적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레그룹이 생산기지를 중국과 인도공장으로 옮겨 한국공장의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현대 기아차 납품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본사는 대주주로서 한국공장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경영 감독,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대신 구조조정과 사업축소를 강요했고, 이에 한국 노동자들은 인원 정리, 상여금 지급 유보, 휴업, 부분매각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감내하면서 흑자전환을 만들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갑작스러운 공장폐쇄 통보로 한국 노동자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말레그룹의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사태는 단순히 대한민국 노동자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OECD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LO) 권고 등 국제사회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한다. 말레그룹은 OECD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으로서 1976년 체결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정부 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말레베어 한국공장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도 인원 정리와 공장폐쇄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노사간 합의 과정을 거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말레 그룹이 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부산 말레베어 직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말레 본사는 노사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장 폐쇄 결정을 중단하라.
2. 이제라도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하여 긴밀한 노사협력으로 한국공장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말레베어 부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주최: 말레 부산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글로벌모임 독일  
(한민족유럽연대, 코리아협의회)

연락처: [solikoeu@gmail.com](mailto:solikoeu@gmail.com)